

넌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9-28절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묻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0.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21. 또 물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물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랴 하느냐
23.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24.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5.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26.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7.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28.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 요단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어떤 맘이었을까?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좋은 찬양이다!”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지금 강물에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가 그냥 상자가 아닙니다. 그 상자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눈에 보이는 상자는 그냥 상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튼금없는 이야기 일 것 같습니다.

당시 세례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해성과 같이 나타난 존재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울 때, 그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일반 대중들이 바라보는 세례요한과 그 세례요한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보아야 했던 종교지도자들의 마음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묻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19절 말씀은 24절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24.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19절에 언급된 유대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 이었습니다. 이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 묻게 한 이유는 아마도 ‘종교적 의식과 사상의 이단성’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요한이 별로 영향력이 없었다면 굳이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율법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는데, 요한이 뜬금없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러한 요한의 선포는 유대 공동체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왜 유대인들은 ‘요한’이라는 사람의 정체에 대하여 궁금해 했을까요?

그들은 요한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은 자신들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핵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려는 것보다, 그 율법을 지키므로 자신들이 누렸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나시는 3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하는 예수님과 대립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복음서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 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보다는 자신들이 현실에서 누리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세례요한을 공동체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물음을 던져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할 무렵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온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 회퍼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책의 해설에서 서강대 명예 철학교수인 강영안은 한국교회 공동체가 생각해야 할 3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는 어느 다른 시대, 어느 다른 지역에 비해 자본주의에 깊이 물든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타인과의 경쟁이 삶의 방식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며, 욕구와 욕망이 삶을 추동하는 힘이 되고, 작은 것보다 큰 것이, 질보다는 양이, 거저 줌이냐 나눔보다는 거래가 오히려 삶을 지배하는 가치가 된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되어 버렸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맘모니즘의 문제)
2. 한국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다른 사상, 다른 종교,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모른다는 것이다. 기독교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지극히 배타적인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사이 몸에 익혔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배타적 선민사상의 문제)
3. 한국 교회의 세 번째 문제로 나는 교회 안에 만연한 '실천적 무신론'을 지목하고자 한다.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지만 행실로는 삶에 열매가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며,' '자기들끼리만'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몇 번이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지극히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공동체'가 주인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자기중심적’인 공동체의 특징은 자기들의 공고함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정죄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을 전혀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만들어가는 이상적 공동체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못하니, 자신이 공동체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쉽게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중심적 공동체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쳐내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 물은 것이 무엇인가요? 본문 21-22절.

21. 또 물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물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내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들은 철저히 자기 공동체 중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은 보다 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한과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들은 단지 자신들이 얻고 싶어 하는 대답을 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과 삶의 행태가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는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받거나 받을 은혜는 별로

반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왜 나에게만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임원을 뽑습니다. 특히 장로를 선출할 때면 아주 민감합니다.

흔히 던지는 말이 장로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목사님과 친해야 하고. . .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직분이라는 것은 ‘권력’이 아니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멍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기꺼이 그 멍에를 쓰는 것이죠.

만나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기 위해 헌금을 해야 하는 어떤 약속이나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쉽게 할까요?

혹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 누군가에게 직분을 주려고 할 때,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목사로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소그룹을 재편성 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누군가는 나뉘어야 하고 누군가는 합쳐져야 하죠. 그 때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 당신의 마음에 들어서 부르신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교인들 이야기만 했으니, ‘목사’ 이야기도 해야겠지요.

물론 세상의 모든 직업도 그렇지만 목사가 되는 길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의 대학원 과정을 마쳐야 목사 되는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자격시험을 붙은 이후에는 3년간 매년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목사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어서는 안 되지. . .” 라는 나쁜 마음으로 후배 목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룹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과정을 지나야 한다는 배타적인 생각이죠.

물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이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도록 격려하고 공부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룹’에 들어오기 위해 이 정도의 고생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라면 뭔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을 찾아왔던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의 물음이 공동체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생각하

게 합니다.

본 회퍼의 책 [성도의 공동생활]로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잘 생각하며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몽상을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몽상은 사람을 교만하고 거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동체상을 꿈꾸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요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법을 만들어서는 그 법에 따라 형제들과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형제들 사이에서 다른 모든 이들을 향하여 마치 살아 있는 비난처럼 완고하게 서있게 됩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 내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의 꿈꾼 대로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려고 행동합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는 처음에는 형제들을 정죄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을 정죄하며, 마지막에는 절망에 빠져 자신을 정죄합니다. . .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하나님의 용서와 약속 아래 살아가는 형제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 합니다.“

아주 멋지고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마음이 맞는 사람이거나, 우리의 마음에 형제와 자매들을 맞추어가려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많이 다른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참 많이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고 포용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은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는 공동체의 형제자매로 보았다면, 좀 더 우호적으로 그를 대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세례요한을 보면서,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요한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더 기쁜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구나!”

그런데 이러한 감정을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 얼마나 날카롭고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를 주는 것이죠.

사도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 장에서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우리는 얼마든지, 열심히 희생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자기 사랑’에 근거합니다. 자신이 꿈꾸는 공동체와 자시의 생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교제하기도 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욕망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지만, 절대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 공동체가 이 열망을 채워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기대가 끊어지는 순간 공동체가 버랑 끝으로 물리게 됩니다. 어느 날 함께 했던 공동체의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본 회퍼는 진정한 공동체는 바로 이 ‘깨어짐’에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내 꿈이 깨어지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와 타인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사랑은 ‘나의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섬김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라!” - 생각나는 겸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겸손!”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은 겸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듯합니다. 세례 요한의 자기 고백이 참 겸손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자신에게 열광하고 있지만 ‘스스로 없어지는 존재’ 즉 ‘소리’에 불과 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켄 시게마츠의 책 [예수를 입는 시간]에 보면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찰 기도를 개발한 로올라의 이그나티우스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하나의 길로써 제 가지 수준의 겸손을 정리했다. 이 겸손의 길은 유익하지만 여간 힘들지 않은 길이다. <u>‘첫 번째 수준’의 겸손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항복하는 것이다.</u>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경이나 양심에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거나 그분의 바람과 어긋난 것을 절대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수준’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른 가난이든, 유명이든 무명이든, 건강한 장수든 고통스러운 짧은 생이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기 위해 자신의 바람을 최대한 내려놓는 것이다.

‘세 번째 수준’의 겸손은 부와 명예, 건강한 장수보다 가난과 무명, 고통스러운 짧은 생을 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보이고 나 역시 이런 식으로 살지 못하지만, 그 의도는 자기확대가 아니라 자만과 교만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 의도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나아가 고통 받는 친구나 가족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이다.

이런 면에서 사도 요한의 그리스도중심적인 정체성이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요한은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모아,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공동체를 만들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말씀에서 더욱 명확해 질 것입니다.

요한은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 아주 분명하게 ‘주의 길’을 위하여 나는 일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세례요한이 자신의 정체에 대하여 아주 명확히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23.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먼저는 자신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야의 말과 같이’라고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역사적 근거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은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소리’란 무엇일까요?

분명히 들리기는 하는데 정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소리는 들리는 것으로 존재를 드러내지만 기 기능이 다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명을 다하면 사라지는 존재’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외치는’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사라져 버릴 존재이기 때문에 대충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소리라고 하니, 최선을 다해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저는 아주 흥미롭게 이 부분을 보았는데, 메시지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과 NIV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이 차이를 보는 것입니다.

"I am the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메시지 성경)

“I’m thunder in the desert: (NIV 성경)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미묘해서 우리 교회 영어를 담당하는 미국인 ‘김산’ 전도사에게 느낌을 이야기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calling’이 주는 느낌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초청’의 의미가 강하고, ‘thunder’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안타깝워서 부르짖는 의미가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시대와 장소 속으로 들어가 감정이입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메마른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세례요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로서 그가 없어지면 그만 일 수도 있는 그 ‘소리’를 대충 내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지를 말입니다.

사명자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 아닐까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은 그 일을 하다가 피를 토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례요한의 간절함으로 인해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그는 소리로서 잠시 존재하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그 소리를 내다 박해를 받을 것이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나는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